

유해진 “서울대 나온 변호사입니다. 하하하”

영화 ‘완벽한 타인’ 태수 역 “말장난보다는 상황에서 우리나는 웃음 그리고 싶어요”



“우리 주변이나 윗세대를 보면 권위적인 사람이 많죠. 저한테도 그런 면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판대가 되는 것 같고...”

유해진(48·사진)은 오는 31일 개봉하는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 서울대를 나온 변호사 태수 역을 맡았다. 아내 수현(염정아 분)이 조금만 짙은 화장을 해도 트집을 잡는 까칠하고 보수적인 성격의 남편이다. 그간 ‘레슬러’ ‘택시운전사’ ‘공조’ ‘럭키’ 등에서 보여준 역할과는 다소 다르다.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유해진은 “처음에는 변호사인 데다 일류대를 나왔다는 설정에 약간 거부감이 들었다”면서 “저 스스로 오글거리기도 하고, 관객들이 제가 그런 역할을 맡아서 웃을까 걱정도 했다”고 말했다.

유해진은 “그래도 색깔과 메시지가 분명하고, 톨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는 대본이 좋아 출연했다”며 “완성된 영화를 보니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완벽한 타인’은 오랜만에 모인 40년지기 고향 친구들과 그 부인들이 저녁 식사 동안 휴대전화 통화와 메시지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하는 게임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각자 비밀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려나.

유해진은 이 작품에서도 웃음을 담당한다. 작은 대사나 애드리브로 상황이 주는 유머를 살리는 것이 그의 장이다. 극 중 반전이 될 만한 은밀한 비밀도 안고 있다. 유해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상황 자체가 웃음을 주는 블랙코미디”라며 “말

장난이나 과한 분장으로 웃기는 것은 싫어한다”고 말했다.

극에는 유해진 이외에 염정아, 조진웅, 김지수, 이서진, 송하윤, 윤경호 등 7명의 배우가 등장한다. 이들은 한 달간 지방 세트에서 촬영하면서 친분이 두터워졌다.

“즐겁게 촬영한 덕분에 배우들과 앙상블이 영화에도 잘 반영된 것 같아요. 몰랐던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좋았죠. 이서진 씨는 까칠하고 바르말만 하는 이미지였는데, 함께 생활하면서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죠. 윤경호 씨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인간성도 좋은 배우고요. 아내 역을 맡은 염정아 씨는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딱 부러지게 연기해서 너무 편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주로 대사로 이뤄지는 영화지만, 유해진은 “만들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눈빛 하나라도 계산이 맞아야 했다”고 말했다.

“극 중 인물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 가 서로 밀바닥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는데, 왜 계속 게임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외국어라면 몰라도, 한국에서라면 중간에 그만두는 게 상식일 것 같았

거든요. 또 순차적으로 일이 터지는데, 관객들이 수긍하면서 끝까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가장 큰 작업이었죠. 다행히 작가와 감독님이 현명하게 상황을 잘 녹여주셨죠. ‘완벽한 타인’은 동명 이탈리아 영화가 원작이다.

유해진은 “이 작품을 보면 다양한 사람에 대한 시선과 원시처럼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결국 보이고야 마는 인간의 못돼먹은 본성에 대해 생각해볼게 된다”고 했다.

“전체적으로는 누구나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람 관계도 반추해보게 되고요. 선의 거짓말도 필요한 것처럼, 작은 일이라면 그냥 물어두고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해진은 이날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른 채 나타났다. 현재 봉오동 전투를 그린 원신연 감독의 ‘전투’를 촬영 중이다. 얼마 전에는 ‘말보이’ 촬영도 마쳤다.

유해진은 “사람들이 ‘영화배우 유해진 씨네’ 하고 알아봐 줄 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면서 “제 이름 앞에 그저 배우라는 수식어만 계속 붙어있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웃었다. /연협뉴스

“내 목소리 너무 싫었어요 지금은 사랑하려 노력 중”

린, 정규 10집 발매...“성실한 가수라는 말 듣고 싶어”

“제 목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왜 저 사람처럼 힘 있지 못하지,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않을지 자책하던 시절이 있었죠.”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하던 취재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섬세한 가창력과 독특한 음색을 지닌 18년차 가수 린(본명 이세진·37·사진)이 열등감에 시달렸다는 고백이 적잖은 놀라움을 줬기 때문이다.

린은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음악감상회를 열고 정규 10집 ‘#10’을 공개하며 그동안의 고민을 털어냈다. 사회는 방송인 신보라가 맡았다.

그는 이번 작업 과정이 유난히 힘들었다고 했다. 앞서 9장 정규앨범과 수많은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작업을 어땠게 했나 스스로 놀랐다고 한다.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기분이 틀러 코스터를 타는 사람이에요. 고도의 집중을 할 때면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힘든 거야’ 자책하게 되죠. 앨범 작업을 잘해

야 판단 생각이 절 갈아먹어 ‘나는 아무 것도 아니야, 먼지같아’라고 느껴졌어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 건 책과 남편 엠씨더맥스 이수였다. 뮤지션이자 친구인 오지은의 책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다’를 읽으며 낙약한 나라도 즐거울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수는 ‘유행가는 차트에 남지만 좋은 곡은 마음에 남는다’는 말을 건네며 불안해하는 린을 달랬다.

우여곡절을 거치며 린은 한뼘 깊어진 듯했다.

그는 “지금은 제가 뭐가 했었다는 게 기쁘다”며 “태생이 한량인 제가 무언가 꾸준하게 할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정규 10집이 나왔으니 속마음으로 저를 칭찬해주고 싶다”고 수줍게 말했다.

이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제 목소리를 사랑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이별의 온도’를 비롯해 ‘노래뿐이라서’, ‘별처럼’, ‘두 마음에 빛이 나’, ‘말해봐’, ‘뻔한 노래’, ‘너는, 책’, ‘취한 밤’, ‘엄마의 꿈’까지 9곡과 타이틀곡의 연주곡 버전이 담겼다. 모두 린이 가사를 썼다. /연협뉴스

‘음유시인’ 조동진 모든 앨범 LP로 나왔다

지난해 가을 세상을 떠난 조동진의 모든 앨범이 바이닐(LP·사진)로 발매됐다. 최근 LP생산업체 마장뮤직엔터테인먼트는 1996년 발매된 조동진 정규 5집 ‘조동진 5’를 LP로 내놓으며 ‘조동진 리마스터드(Remasterd) LP’ 시리즈를 매듭짓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복한 사람’이 담긴 ‘조동진 1’, 한국 모던 포크를 확장시킨 작품으로 손꼽히는 ‘조동진 2’, ‘슬픔이 너의 가슴에’와 ‘제비꽃’이 담긴 ‘조동진 3’, 음악공동체 하나음악의 출범을 알린 ‘조

동진 4’, ‘새벽 안개’가 수록된 ‘조동진 5’와 유작 앨범 ‘나무가 되어’까지 6장을 LP로 선보이게 됐다.

마장뮤직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6월부터 ‘조동진 리마스터드(Remasterd) LP’ 프로젝트를 가동해 조동진의 목소리를 되살려냈다.

1966년 미8군 밴드도 음악을 시작한 조동진은 록그룹 ‘셰그린’과 ‘동방의 빛’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하며 서정성 짙은 포크 음악으로 언더그라운드 음악계를 이끌었다. /연협뉴스



2016년 11월 20년만의 새 앨범 ‘나무가 되어’를 발표했으며 방광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8월 28일 세상을 떠났다.

음악 동료들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조동진 1주기 기념 콘서트’를 열어 고인을 추모했다. /연협뉴스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45 닥터 365 5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탈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배드파파(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최고의 이혼(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배드파파(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다산해배 200주년기념 국악 토크콘서트 다시! 다산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전라도 매력청(재)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출발! 비디오회 여행 다이제스트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편성, 양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사이닝스타 55 뽀뽀모 모두야 놀자	00 제5차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U-15) 축구 개막전 <강원도·북한 425체육단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40 생활의 달인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	15 MBC 플러스특선 단판 오피스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우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블24 55 제보자들	55 핑크피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최고의 이혼	00 배드파파	00 여우각시별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재동	10 안녕하세요	10 지역MBC 공동기획 지역독립선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클래식컬 다이어리 50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15 마샤와 곰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칼의 역사 - 2600년의 역사, 용천보검! >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몬카트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30 띠띠뽀 띠띠뽀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림(재)	20:40 세계테마기행 <불수룩 짜릿한! 북대서양 빙하 섬 1부 극한의 땅 그린란드>
08: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4:30 몬카트(재)	21:30 한국기행 <노포기행 1부 가을엔 황간역으로 간다>
08:45 방귀대장 뽀뽀로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21:50 EBS 다큐프라임
09:00 뽀뽀로로 노래해요	15:15 파프리카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9:1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3:55 배워서 남줄림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9:40 세상을 나쁜 개는 없다	16:15 똑딱맨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9일(음 9월 21일 甲午)

子 36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속출하리라. 48년생 가볍게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겠다. 60년생 묵묵히 진행해 나가지만 하연 궁극적으로 성사 되리라. 72년생 침착해야만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84년생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82	午 42년생 현대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54년생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다. 66년생 손발이 척척 맞아서 순조로움을 더 하겠다. 78년생 정확한 정보 판단이야말로 성사 여부를 좌우한다. 90년생 미흡한 점을 해소한다면 마음까지 후련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76
丑 37년생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하자. 49년생 원리를 파악한다면 정곡을 찌를 수 있다. 61년생 가능성이 농후하니 본격적으로 시도하라. 73년생 길장을 이끄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85년생 무리악어 가고 있으니 만사형통하리라. 행운의 숫자 : 46, 32	未 43년생 예상과는 달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겠다. 55년생 동선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67년생 연쇄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라. 79년생 자신을 낮출수록 귀히 대접으로 작용하리라. 91년생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6, 08
寅 38년생 의외의 방해자가 보이므로 대비해야겠다. 50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 하자. 62년생 불행하다면 빨리 청산해야 마땅하다. 74년생 현상 유지 보다는 진전 시기에 더 무리한 운로라고 볼 수 있다. 86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극복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4, 90	申 44년생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흥부해진 셈이다. 56년생 당면 과제를 소화해 한다면 힘들어질 것이다. 68년생 돌발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부실하게 된다. 80년생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유익하다. 92년생 주관적인 예단에서 벗어 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2, 38
卯 39년생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정적이며 편하다. 51년생 별문제 없으니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 63년생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역할을 하게 되리라. 75년생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것이 맞다. 87년생 꼼꼼한 여유마저 없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04, 30	酉 45년생 주변의 성급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리라. 57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혜안이 절실히 필요한 국량이다. 69년생 자신을 낮출수록 귀히 대접 받는 법이다. 81년생 다양한 수단을 활용 해보라. 93년생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0, 06
辰 40년생 시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가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한다. 52년생 과욕은 훗날의 아픔을 예고하는 진원지가 된다. 64년생 이면까지 살펴 본 후에 판단할 일이다. 76년생 장래의 전망을 밝게 할 것임은 분명하다. 88년생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행운의 숫자 : 81, 97	戌 34년생 적절한 시기의 선택을 요한다. 46년생 무난하게 진행 될 것이나 격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58년생 징후가 보여도 내버려두다면 정년 약화될 게 뻔하다. 70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82년생 현재는 난해할 지라도 잘 풀려 나가겠다. 행운의 숫자 : 58, 60
巳 41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 하느니라. 53년생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65년생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77년생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임을 알라. 89년생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9, 66	亥 35년생 과거에 얽매지 말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자. 47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한다면 가능성이 높다. 59년생 소박한 행복을 만끽할 운로이다. 71년생 여태까지 했던 것은 헛수고였으니 다시 해야겠다. 83년생 세밀하게 감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52, 8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atering” ☎010-9790-8237